

건축구조 기술사로서의 긍지 및 자세

누구에게나 지나온 과거가 있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성하여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건축구조를 시작하고 난 후 생활을 늘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날 하루의 자기자신의 잘한 것과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건축구조를 택하고 나서의 그 동안의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 구조설계 했던 건축물, 내 능력 이상으로 해결했던 것들 나의 구조설계 실수로 힘들었던 일 등 ...

요사이 많은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구조를 전공하는 직원들이 건축구조를 3D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대학교의 건축구조 전공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건설회사는 인력이 넘쳐나는데 건축구조설계회사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수금은 물론 인력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축과를 졸업하고 진로만 다를 뿐인데 우리 선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구조기술사 및 차세대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동안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회와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생각하며 우리 후배에게 멋진 구조기술인으로서의 자부과 긍지를 넘겨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회는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구조 실무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신기술, 신공법 설계 정리, 기술자료 정리, 여러 공사현장에서 발생될 사고의 원인 및 향후 대책 등의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바라던 구조설계의 직발주 및 분리발주, 구조감리가 될 수 있게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약 20년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하나로 명예와 부를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로써 도전 그 자체를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소중한 자산으로 더 나은 도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성공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술개발에 앞장서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건축 현장의 공시원이 절감, 공기 단축 효과, 사용성 증대 등으로 건축주 및 시공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조엔지니어란 무엇일까요?

구조기술사는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날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조기술사라는 자격이 먹고사는 방편으로만 전락하고 말아야 합니까? 건설사의 배불리기에 편승한 단편적 기교들은 발전보다는 또 다른 퇴



차승렬 우리회 부회장
(주)동양구조엔지니어링 대표

보를 낳고 있으며, 단시안적인 경제 여건의 해결밖에는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4월 건축구조기술사대회를 통해 다짐했던 많은 결의들이 이제는 빛바랜 모습으로 남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영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염려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의 설계비 견적은 결국, 자사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업계에서의 비난과 건설사나 건축설계사로부터의 불신 등 무척이나 실추된 위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구조기술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켜 지속적인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며, 나 혼자 또는 한회사만의 욕심이 아니라, 함께 어울어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살길이요,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의 우리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정말 값진 설계를 만들어 내고, 구조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구상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제안함으로써, 어려울수록 참고 견디며, 모든 구조기술자들이 서로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신기술 개발, 설계사끼리의 다양한 정보교류, 풍부한 경험의 엔지니어들에 의한 실무세미나 등과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구조설계 시간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재미있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과 다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 부각 등을 통해 구조기술자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의 기술이 사회에 이득이 되게 되고 우리를 인정하는 풍토로 전환되게 하여야겠습니다.

건축구조 엔지니어 여러분!

우리 모두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